

아트경기 x 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

박 용 화

박용화의 페인팅은 지켜야 할 구분 장치의 경계에서 바라보는 시선들에서 시작된다. 당신은 그 경계의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밖에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감상자의 선택이다. 작가가 제시하는 풍경과 피사체는 분명 우리가 익히 아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친숙한가에 있어서는 의구심을 갖게끔 한다. 때문에 경계의 안과 밖, 어떠한 선택에서도 이미지와 감상자 간의 절대적으로 좁혀지지 않을 물리적 캔버스의 두께만큼 그림 속 대상에 대해서는 ‘피상적인 얇’의 한계가 존재한다.



박용화, 가려진 안식처, 53x45.5cm, Oil on canvas,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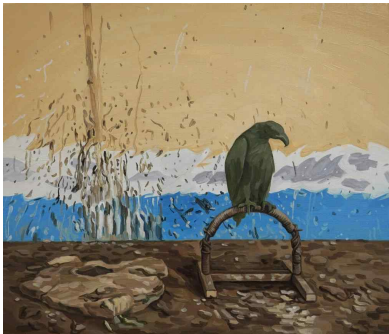
그림 속 풍경에 마땅히 있을 법한 울타리, 유리막, 창살 등과 같은 알팍한 경계에 선 시점은 기이한 공기를 형성하며 여기서 감히 상상하고 그려내는 행위를 당한 피사체와 환경의 기능과 목적, 본질을 의도치 않게 의심하고 판단을 거쳐버린다. 수많은 불가피한 ‘피상적 얇’을 맞닥뜨리는 자연스러운 폭력성과 긴장감을 내포한 사회는 자연과 인간의 유대라는 선한 명목하에 그와 반하는 억압을 전제로 가져가게 되는 (작가의 그림 속 자주 등장하는 배경인) ‘동물원’ 과 크게 다르지 않다. 더 불어 부재되거나 불분명한 실루엣 정도로만 그려진 해당 배경에 익히 있어야 할 대상은 불안함을 입체적인 풍경으로써 보여주며 제3의 위치에 놓인 감상자까지 그 관계 속으로 유인한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이미지-관객, 피사체-환경, 작가-관객, 모든 관계에 있어 절대 좁혀지지 않을 보이지 않는 경계를 두고 서로 해치지는 못할 것이며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계는 깊고 가까운 관계에 대한 염원과 갈망에 비례하여 견고하기도 하다.

글 조 정 민 / 화이트노이즈 운영 및 독립기획자



2018년 3월, 서울 방배동의 지하에서 시작된 화이트노이즈는 다양한 예술적 시도와 교류를 위한 장소로 출발하였다. 주류와 비주류, 영리와 비영리, 미술과 비미술 등 분야의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문법으로 국내외의 아티스트와 그 현장을 주목하고 탐구하고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화이트노이즈는 물리적 공간을 넘어 유동적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다방면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유연한 아티스트 풀(pool)을 제공하고 있다.

작가 박 용 화 Park, Yonghwa b.1983 (2022 아트경기 선정작가)



박제된 동물성, 45.5x53cm, Oil on canvas, 2021

박용화는 동물원이 함축하고 있는 이중의식(ambivalence)에 주목하여 초현실적 장면을 회화에 담는다. 그의 회화는 억압된 것의 회귀라는 관점에서 동물원을 관통하는 언캐니의 정서를 환기시킨다. “동물원”이라는 말에 깊숙이 배어 있는 억압의 경계와 원초적이며 원시적인 생명력의 끝없는 대치 상태를 회화로 표현하며, 초현실적인 이중의식의 끝없는 연쇄 작용을 통해 보는 이로 하여금 보편성에 의문을 품도록 한다. 주요전시로 <미술원, 우리와 우리사이>(국립현대미술관청주, 2021), 빅스트 코드(대전시립미술관, 2019)가 있다.

사업소개 아트경기x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

2022 경기 미술품 활성화 사업(아트경기)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아트경기x믹 작가·평론가 1:1 매칭 비평]은 아트경기 협력사 믹MEEK의 기획으로 진행, 2022년에 선정된 아트경기 작가와 다학제적 장르를 대표하는 멘토를 매칭하여 비평을 진행한다. 총 8인의 아트경기 작가와 3인의 전문가는 9월부터 11월 동안 1:1 면담을 통해 작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나누었고 그 결과 총 8편의 비평글이 작성되었다. 8편의 비평글은 작가와 협력사 믹, 전문 평론가가 만들어낸 협력의 결과물이며, 아트경기 작가의 다양한 해석과 장르 확장의 지점을 제공한다.